

# 한국 사브르, 세계를 찌르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린 펜싱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한국의 오상욱(왼쪽)이 헝가리의 아론 실라지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 구본길, 김정환(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대전대), 김준호(국군체육부대) 등 4명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이날 결승전에서 난적 헝가리를 45-22로 제압하고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

## 세계선수권 단체전 난적 헝가리 45-22 제압하고 첫 금...구본길·김정환 '그랜드슬램'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구본길, 김정환(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대전대), 김준호(국군체육부대)가 출전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5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난적 헝가리를 45-22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이 펜싱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건 2010년 남자 사브르 개인전의 원우영 이후 7년 만이다. 단체전에서는 2005년 남현희, 정길욱 등이 출전한 여자 플뢰레팀이 우승한 뒤 12년 만이며, 사브르 종목에서는 처음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에서 구본길은 은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남자 사브르

가 메달 수확(금 1·은 1)을 주도했다. 주축인 구본길과 김정환은 주요 4대 국제대회인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모두 우승을 맞보는 '그랜드슬램'의 기쁨도 누렸다. 16강전에서 중국을 45-20으로 가볍게 물리친 대표팀은 8강전에서 루마니아를 45-32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4강전에선 미국과 접전을 펼친 끝에 45-44로 신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오상욱, 구본길, 김정환이 나선 헝가리와의 결승전에서 한국은 첫 라운드에서 오상욱이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안드라스 사트마리를 5-1로 누르며 기선 제압했다. 2라운드에서 구본길이 2회 연속 올림픽 개인전 우승자인 아론 실라지에게 8-10으로 역전을 허용했으나 마땅 김정환이 3라운드에서 15-12로 역전에 성공하며 리

드를 잡았다. 다시 나선 구본길은 개인전 결승 상대였던 사트마리와의 재결전에서 20-15로 점수를 벌였고, 오상욱이 차나드 게메시에게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면서 25-15로 달아났다. 김정환이 나선 6라운드에선 30-16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김정환은 사트마리와의 8라운드에서 한 점만 내주며 40-19로 격차를 벌려 헝가리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연합뉴스

## 새 팀 찾아오

### KIA 김다원 '웨이버' 신청

"기회를 얻어서 잘하는 모습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호랑이 군단'에서 뛰었던 외야수 김다원(사진)이 새 동지를 찾는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24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외야수 김다원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 김다원이 웨이버 공시 후 1주일 이내에 다른 구단의 지명을 받아 이적하면 올 시즌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광주 동성고 출신의 김다원은 2008년 한화 이글스의 육성선수로 입단한 뒤, 지난 2010년 트레이드를 통해 고향팀에 입성했다. KIA에서 1·2군 무대를 오가며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경찰청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2014년과 2015년 1군 무대에서 194경기를 소화하며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해 25경기에 나와 43타수 13안타(타율 0.302) 1홈런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올 시즌에는 KIA의 치열한 외야 경쟁에서 설 자리를 잃으며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다. 김다원은 "KIA 고향팀이 이곳에 와서 1군 무대에서 뛰고 싶어도 알렸다. 특별하고 고마운 팀이다"며 "정말 많이 듣기도 해서 KIA 유니폼을 못 입게 된 게 서운하다"고 웨이버 공시에 대한 심경을 언급했다. 또 "KIA 외야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서 올 시즌을 준비했고 보냈다는 점에서는 후회는 없다. 시원스럽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 올해 못 띤다

### 김상현 찾는 팀 없어 다른 팀과 계약 못해

kt wiz가 웨이버 공시한 베테랑 타자 김상현(37)이 새 동지를 찾지 못했다. KBO는 지난 18일 kt 요청에 따라 김상현에 대해 웨이버 공시를 했다. 김상현 영입에 관심이 있는 다른 구단은 웨이버 공시 후 7일 동안 양도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감일인 지난 24일까지 양도신청 의사를 보인 구단은 없었고, 이에 따라 김상현은 소속팀이 없는 자유계약선수(FA)가 됐다. KBO 규약상 웨이버 공시 후 양도가 이뤄지지 않아 자유계약선수가 된 선수는 그해에는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없다. 즉 김상현은 올해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kt는 김상현이 이적하지 않고 무적 신분이 되면 임의탈퇴 기간을 제외한 잔여 연봉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 류현진 2실점...4승 불발

류현진(로스엔젤레스 다저스)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췄으나 불발의 난조로 시즌 4승째 수확은 불발됐다. 류현진은 25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2017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5안타를 맞고 2실점 한 채 물러났다. 79개의 공을 던져 삼진 5개를 빼앗았지만, 불발도 3개나 내줬다. 원손 투수 류현진은 5피안타 중 4개를 좌타자에게 맞았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2-2로 균형을 맞추고 1사 3루의 역전 찬스를 이어가던 5회 말 타석에서 대타 체이스 어틀리로 교체됐다. 이후 다저스가 3-2로 전세를 뒤집어 류현진은 시즌 4승째를 거둘 자격을 확보했다. 하지만 6회 등판한 그랜트 데이턴이 에디 로사리오에게 솔로 홈런을 맞고 3-3, 동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류현진의 승리는 날아갔다. /연합뉴스



## '낮음'으로 '힘' 제압한다



KIA 타이거즈의 정용운(사진)이 '낮음'으로 '힘'에 맞선다. 후반기 출발이 좋지 못했던 KIA는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안방에서 주중 3연전을 치르고 있다. 사이드암 임기영을 내세워 SK와의 3연전 경기기를 소화했던 KIA는 26일에는 좌완 정용운을 마운드에 내세운다. 전반기 '깜짝 활약'을 하며 1위 행진의 숨은 원동력이 됐던 정용운에게는 후반기 첫 승이자 시즌 4승을 향한 도전이다. 6월 4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생애 첫 선발로 나서 팀의 싸늘이 패를 저지했던 그는 두 번째 등판에서도 역시 넥센 히어로즈의 싸늘이 3연승을 막으며 분위기를 살렸다. 6월 30일 LG전까지 정용운은 3승을 기록하고 있다. 정용운이 나오면 팀도 잘 풀렸다. 정용

### KIA 정용운 SK전 선발

#### "이닝 욕심 버리고 항상 최선"

운이 선발로 나온 7경기에서 KIA는 6승 1패를 수확했다.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선발이 아닌 중간으로 출격했던 12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도 팀은 7-6 승리를 신고했다. 이날 선발 패턴이 3.1이닝을 끝으로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난 뒤 한승혁-박진태에 이어 정용운이 7회부터 출격해 3이닝을 그리고 팀은 10회 연장 승부에서 타진 최형우의 끝내기 홈런으로 짜릿한 승리를 기록했다. 넥센을 상대로 한 후반기 첫 등판 성적은 4이닝 5실점으로 좋지 못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KIA는 김민식의 결승타로 8-7 승리를 거두며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다.

후반기 정용운이 맞은 두 번째 상대는 SK. 전반기의 뜨겁던 기세가 주춤하다고 하지만 SK는 리그를 대표하는 '호랑이 군단'의 선발진 한 자리를 차지한 정용운은 '낮음'으로 SK의 '힘'에 맞서겠다는 각오다. 강력한 구속구는 없지만 좋은 체인지업과 특유의 느낌을 더 강조하는 커브로 '호랑이 군단'의 선발진 한 자리를 차지한 정용운은 '낮음'으로 SK의 '힘'에 맞서겠다는 각오다. 정용운은 "SK는 한방이 있는 팀이다. 낮게 던지면서 승부를 해야 할 것이다. 제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제구가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이닝 욕심은 버리려고 한다. 괜히 이닝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선발로서 최소 5회는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때 이닝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던질 것이다. 때 이닝 최선을 다해 던지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몸에 맞는 공 1위 나지완 "당연히 무섭죠"

### 김기태 "점수는 잠깐 맡겨 둔 거라 치고"

#### 덕아웃 T 특목

##### ▲당연히 무섭죠

매일 공을 보고 공을 치는 프로야구 선수지만 '공'이 무서운 나지완이다. 나지완은 25일 경기 전까지 17차례 공에 맞으면 SK 최정과 올 시즌 사(死)구 공동 1위에 올라있다. 통산 기록으로 따져도 129개로 타이거즈 역대 최다 사구자로 자신의 기록을 경신해 가는 상황이다. 올 시즌 한 이닝 2사구라는 진기록에도 이름을 올린 나지완은 지난 23일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두 개의 사구를 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는 나지완이다. 나지완은 공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무섭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 승부를 해야 한다"며 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 ▲예쁘게 던지더라

스카이 스포츠 이효봉 해설위원에게는 눈에 띄던 고등학교 임기영이었다. 이효봉 해설위원은 25일 이날 KIA 선발 임기영에 대해 "예쁘게 던지던 투수였다"고 옛 기억을 떠올렸다. 이 위원은 "대회 중계를 하러 가서 경복고 임기영을 봤었다. 그때도 제구는 좋아서 스트라이크 존에 잘 집어넣었다. 자신 있게 공을 던졌는데 힘이 없었다. 당시 경복고 감독도 힘만 붙이면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고 칭찬을 했었다"며 "한화 시절에도 힘이 부족했는데 군대 다녀오고 나니 몸이 커지고 힘도 많이 붙었다"고 임기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위원은 또 "친구인 김윤동도 기억에 남

는다. 김윤동의 경우 제구가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포심의 힘은 막강하다. 밸런스가 좋은 선수라 경기 중에 제구를 잡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올 시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두 선수 모두 멘탈도 좋은 선수이고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잠깐 맡겨 둔 거라 치고 KIA는 전반기를 불태웠던 방망이가 주춤하면서 후반기 첫 주 2승 4패를 기록했다. 특히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3경기 4득점에 그치면서 싸늘이 3연패를 당하기도 했다. 25일 경기를 앞두고 타선 침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점수는) 잠깐 맡겨 둔 거라 치고, 날씨가 더운데 선수들이 고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본다. (싸늘이 3연패 이후) 선수들에게 한 주 고생 많이 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 시작하자고 했다"며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

##### ▲그래도 재미있어요

더위도 힘들어도 야구가 재미있는 내야수 고장혁이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속에 선수들은 매일 더위와 전쟁을 하고 있다. KIA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극한 직업이라는 이야기에 고장혁은 "그래도 야구가 재미있다.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할 것 같다"며 야구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과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